한국심리학회지: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4, Vol. 33, No. 2, 261-278

남자 청소년용 사이버 음란물 중독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박 선 경 송 원 영†

건양대학교 인간과학연구소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본 연구는 남자 청소년용 사이버 음란물 중독 척도를 개발하고,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우선 선행연구와 신문기사 스크랩을 통해 158개의 예비문항 후보들을 고안하고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걸쳐 38문항을 선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6문항의 예비문항을 완성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구성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1을 통해 선택된 총 16개 문항의 설문지를 274명의 남학생에게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4개 문항을 제거하였고, 척도는 최종적으로 3요인(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Young의 사이버섹스중독 검사(r=.75)와 강간통념 수용도(r=.49), 간략형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r=.42)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의 신뢰도는 .90, Guttman 반분계수 .85,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8로 전반적인 신뢰도는 높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이버 음란물, 청소년, 척도 개발

---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정리, 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3S1A5A2A01017876)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송원영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 (320-711)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 Tel : 041-730-5414 / E-mail : song@konyang.ac.kr

우리사회에서 인터넷은 현대 생활의 일부로 다양한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개개인들에게 많은 자유로움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 인해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을 하기 쉽고, 나아가 다양한 문제행동 및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증가시키곤 한다(양돈규, 2000). 특히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매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발달적 집단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의 부정적,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조남근, 양돈규, 2001).

청소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는 인터넷 음란물은 음란 동영상, 사진, 만화 등이었으며 이런 음란물을 접하면 성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성 행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이것을 성적으로 실행하려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강간, 성적 추행, 청소년의 임신과 낙태 등의 연쇄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채규만, 2003). 사이버 상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은 매우 빠르고 은밀하게 전파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음란물에 쉽게 접할 뿐 아니라 이러한 정보가 쉽게 복제되거나 엄청난 속도로 전파된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최근 행안부의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물을 접한 청소년의 대다수는 '충격을 받았다'(32.2%), '불쾌감이나 혐오감이 들었다'(31.7%),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24.1%)고 했지만 '성인물을 따라하고 싶었다'는 답도 14.2%나 됐다. 특히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20.3%가 '따라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성추행·성폭행 충동을 느낀다'는 답도 5%로 나타나 청소년의 성인물 접촉이 성적 일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물을 본 청소년들 중 일부는 음란채팅(4.9%), 야한 문자·사진·동영상 전송(4.7%), 몰카촬영(1.9%) 등을 실행으로 옮긴 적이 있다고 답해 청소년의 성인물 접촉이 부적절한 행동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12. 7. 30).

최근에는 인터넷과 더불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각종 컴퓨터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손쉽게 음란물을 접근 및 공유할 수 있게 되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점차 청소년들의 사이버 음란물의 노출위험은 더욱 높아지는 반면에, 청소년들로부터 음란물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어서 문제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접하게 되는 사이버 음란물을 통해 모방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8년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사건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은 성폭행에 가담한 초등학생들이 인터넷과 케이블 TV 등에서 음란물을 보고 성행위를 따라 하다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뉴시스, 2008. 5. 1).

음란물 접촉은 다른 지위비행과는 달리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의식이나 가치관, 성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김정규, 2012). 음란물을 많이 접촉한 청소년들일 수록 성관계 경험과 기대감이 더 높고, 성과 가족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흐려질 뿐 아니라 남녀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이고, 성에 대한 도덕적인 규범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Fisher, Hill, Brube, Bersamin, Walker and Gruber, 2009; Tsitsika, Crirtselis, Kormas, Konstantoulaki, Constantopoulos and Kafetzis, 2009; 김정규, 2012 재인용). 따라서 사이버 음란물 중독에 대한 조사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사이버섹스 중독과 같은 하위 중독 현상을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 검사 도구의 개발은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김민, 곽재분, 2011).

지금까지의 사이버 음란물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오선(2004)은 음란물에 접촉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중독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시간만 산정할 뿐 음란물 중독이라는 병리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 음란물 중독 여부를 타당하게 식별해주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 외 대부분 연구들에서는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김민, 2003; 이상준, 2003, 진인영, 2005). 이 경우는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번안되었다는 문제점과 대상자의 발달특성과 상관없이 청소년과 성인에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현 사회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접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각종 휴대하기 편리한 기기의 보급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받지 않고 인터넷을 접하고 있으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확대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외국의 척도(Young, 2002)가 개발된 지 10년 이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척도의 문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현상이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은 변화와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음란물 중독 여부를 식별해줄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사이버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김상원 외(1999)는 사이버 시대가 청소년의 의식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첫째, 욕구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 둘째, 성에 대한 왜곡된 지식의 습득, 셋째, 성에 대한 현실감각 둔화, 넷째, 익명성이 낳는 정서통제능력의 감소와 불신감, 다섯째, 실제적인 만남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들었다.

요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넷북, 스마트폰 등 각종 기기들의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눈을 피해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SNS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음란물을 포함한 유해매체를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접하고, 공유하는 방법도 점점 다양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청소년들이 사이버 음란물 중독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다른 매체들과는 달리 사이버 음란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영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음란정보를 접하는데 있어 타인의 통제를 받지 않고,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구할 수 있는 양이 많고, 자극적인 음란물이 계속 공급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어기준, 2002; 남영옥, 2004 재인용). 발달 특성상 청소년들은 성적 관심과 호기심이 폭증하는 시기로서, 음란물 접촉의 영향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이건호, 강혜자, 2005).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의식과 성태도, 성행동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음란물은 주로 남녀 성의 불평등, 여성의 물신화 및 상품화, 성폭력 등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여성은 주로 피지배 되는 존재이자, 성적 의존자로 나타난다(심재웅, 2010; Cowan and Campbell, 1994; McKee, 2005; 김정규, 2012 재인용). 따라서 청소년들은 잘못된 성의식을 형성하고 부적절한 성행동을 하기 쉬우므로 사회에 넘쳐나는 왜곡된 성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백혜정, 김은정, 2008; 윤명숙, 2011 재인용). 청소년을 비롯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음란물과 같은 유해물 노출에 의한 부정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에서 정부에 의한 처벌위주의 법적인 규제,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행동준칙에 따라 규제를 하는 자율적인 규제, 차단 프로그램과 같은 기술적인 통제장치를 이용한 기술적 통제 등을 통해 사이버 음란물을 규제하고 있다(구자현, 2010). 이제는 기존에 음란물을 접하고 있던 청소년들을 위해 사이버 음란물 중독 수준을 진단하여 중독의 여부를 선별하고 그 정도에 따른 체계적인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부분의 연구논문에서 사용된 척도는 기존의 인터넷 중독척도를 응용하거나, 외국에서 만들어진 척도를 번안·수정하여 응용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우리나라에 맞는 신뢰롭고 타당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진단도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음란물 중독 질문지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남자 청소년용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1)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 음란물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버섹스중독 검사, 강간통념 수용도, 인터넷중독 검사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따라서 수렴타당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2) 인터넷 자기효능감 검사는 사이버 음란물 중독과는 사이버란 공통점을 지녔으나, 성이나 중독과 관련된 문항이 없다는 차이점으로 상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변별타당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둘째, 남자 청소년용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1) 적절한 수준의 반분신뢰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2) 적절한 수준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연구는 연구 1과 연구 2로 구성되었다. 사이버 음란물 중독 척도의 최종 문항 선정을 위한 연구 1의 경우, 남자 중·고등학생 78명(평균 연령 15.51세)이었다. 78명 중 음란물을 본 적 있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63명(80.8%)이었고,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5명(19.2%)이었다. 사이버 음란물 중독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 2는 남자 중·고등학생 274명(평균 연령 15.72세)이었다. 274명 중 음란물을 본적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46명(89.8%)이었고, 본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28명(10.2%)이었다.

절차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의 교사들에게 배부하였

다. 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학생들에게 실시할 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구성, 설문지 작성 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또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한 유사한 설문을 약 2주 뒤에 실시하기 위해,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 연구1과 연구2의 설문결과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이름 또는 별칭(별명)을 추가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측정도구

사이버 음란물 중독 척도

예비조사에서 요인분석을 걸쳐 구성된 16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5점 Likert척도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 .90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섹스 중독 검사(The Cybersexual Addiction Index: CAI)

기존에 사이버 음란물의 중독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던 척도로, 사이버섹스 중독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Young(2002)이 제작하고 김민(2003)이 수정·번안한 사이버섹스 중독 검사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6점 Likert척도로 '결코 아니다(0점)' - '항상 그렇다(5점)'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0~30점은 비중독, 31~49점은 경미한 중독, 50~79점이면 중등도의 중독 상태이며, 80~100점이면 중증 중독을 말한다. Cronbach's α = .91로 나타났으며(김민, 2003), 본 연구의 Cronbach's α = .91로 나타났다.

강간통념 수용도

기존의 연구(김경희, 1996; 지영단, 2001)들을 통해서 음란물은 청소년들의 강간통념 수용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렴타당도에서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강간통념 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urt(1980)가 개발한 강간통념 수용척도를 이석재(1999)가 수정·번안하고 새로운 강간통념을 추가로 포함한 것을 사용하였다.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강간통념 문항에 대해 9점 척도 상에 찬반의 정도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척도는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 8문항, 피해자의 성경험 4문항,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4문항,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9점 Likert 척도로서 '아주반대(1점)' - '아주찬성(9점)'으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4로 나타났다.

간략형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KS척도)

선행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자들이 음란물에 대한 시간소요도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민, 2003; 최미라, 2006; 김성숙, 구현영, 2007). 따라서 어느 정도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고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개발한 K척도를 간추린 청소년용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간략형(KS척도)을 사용하였다. KS척도는 전체 20문항으로 일상생활장애 6문항, 긍정적 기대 1문항, 금단 4문항,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3문항, 일탈행동 2문항, 내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48~52점은 잠재적 위험사용군, 53점 이상은 고위험군을 말한다. KS척도에 대한 Cronbach's α =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경우 Cronbach's α = .90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자기효능감

인터넷 자기효능감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박윤정, 2009). 사이버 음란물 중독과는 사이버란 공통점을 지녔으나, 성이나 중독과 관련된 문항이 없다는 차이점으로 상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변별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 도구로 박윤정(2009)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아니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을 합산한 평균을 구하여 인터넷 자기효능감의 지수를 산출했으며, 지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에서 자녀집단의 경우 Cronbach's α = .89, 부모집단의 경우 Cronbach's α = .9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경우 Cronbach's α = .90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PASW 18.0프로그램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 PASW 18.0을 사용하여 예비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주축요인추출로 사각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2에서도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으며,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최종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이버섹스 중독(CAI)척도, 강간통념, 인터넷 중독척도, 인터넷 효능감의 변인들과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 계수로서 Cronbach's α와 Guttman 반분계수를 살펴보았으며, 2주의 간격을 두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결 과

연구 1, 2에 따른 사이버 음란물 중독 척도와 하위 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척도개발개요

청소년의 사이버 음란물 중독의 특성을 반영할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따라 수행하였으며,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예비문항 선정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의 문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및 기존에 개발된 사이버 음란물 척도, 다른 중독관련 진단척도 그리고 지난 3년 간 사이버 음란물과 관련된 신문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이버 음란물 중독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문항들을 추출하였다(총 158문항). 그 다음 본 연구자와 교수(임상심리 전문가) 1명, 그리고 임상심리 석사과정에 있

표 1.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연구 1 (n=63)		연구 2 (n=274)	
	M	*SD*	*M*	*SD*
요인 1 (일상생활장애)	5.19	2.64	6.27	2.62
요인 2 (성충동과 접근성의 증가)	8.03	4.10	-	-
요인 3 (금단)	6.97	3.39	8.78	3.76
요인 4 (내성)	7.14	4.13	9.09	3.98
전체	61.76	25.65	32.23	11.49

표 2.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 개발과정

예비문항 구성	• 문헌연구 및 기존 사이버음란물 중독척도 분석(총 158문항 추출)
⬇	
내용타당도 검증 및 예비문항 추출	• 1차 내용타당도 : 76문항 선정 (문항 분류 및 중복 제거) • 2차 내용타당도 : 38문항 선정 (전문가 3명, 문항 적합도 평가)
⬇	
1차 연구	• 대상 : 음란물접촉자 63명 (중 · 고등학생 78명) •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 → 총 16문항 4요인구성
⬇	
2차 연구	• 대상 : 중 · 고등학생 274명 •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 총 12문항 3요인구성 •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	
검사도구완성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 총 12문항 3요인 (금단, 내성, 일상생활장애)

는 대학원생 2명이 158개의 문항들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중복된다고 판단된 문항들을 통합, 제거하는 과정을 걸쳐 76문항을 선정하였다.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를 구성하는 예비문항(76문항)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문항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실제 음란물 중독과 성범죄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임상심리전문가 2인, 상담심리사 1인이었으며, 사이버 음란물 중독의 특징에 부합되는 정도에 따라 각 문항을 5점 Likert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가한 내용으로 빈도,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

여 부적합한 문항을 제거하였다. 문항선정기준은 최소값 3점 이상, 평균 3.0이상인 경우로 삼고, 최소값 3점 미만, 평균 3.0미만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 결과,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를 구성하는 예비문항은 총 38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연구 1: 탐색적 요인분석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대상자의 예비문항응답에 대하여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이용한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KMO의 표준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KMO= .7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3802.81, p<.001로 요인분석이 적합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큰 값의 고유값(eigenvalue), 스크리 도표, 누적분산비율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이 전체분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고유치의 1.0이상을 기준으로 정하여 살펴본 결과, 7개의 성분이 추출되었고, 전체변이의 78.7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요인회전이 수렴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 중, '음란물을 본적이 있다'고 보고한 남자 63명의 자료만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고 고유값이 1.0이상의 요인으로 8개의 성분이 추출되었으나, 지나치게 많은 요인 수로 인해 각 요인이 문항의 특징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졌다. 다시 요인의 수를 1개부터 7개까지 고정하여 각각 분석한 결과, 4개 요인이 기준 고유치 1.0이상이면서 전체변이의 67.29%를 설명하고 있어 각 요인별로 문항의 특징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추출된 4개 요인의 문항별로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문항의 수가 일정하지 않고, 낮은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들이 있어 요인별로 문항수를 줄이고자 하였다. 문항을 제거하기 위한 기준은 각 요인별로 문항수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각 요인에서 요인부하량이 낮은 순으로 제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 만들어진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는 16문항으로 요인별 문항은 표 3과 같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요인 1은 사이버 음란물로 인해 학업문제나 대인관계문제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일상생활장애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사이버 음란물로 인해 성적인 생각과 행동의 증가와 사이버 음란물을 접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음란물을 접하려는 행동과 관련한 문항내용으로 성충동과 접근성 증가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사이버 음란물을 중단하거나 이용을 줄이게 되면 걱정, 불안 등의 모습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금단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4는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더 새롭거나 자극적인 사이버 음란물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내용으로 내성으로 명명하였다.

연구 2: 요인분석(1)

본 연구에서 개발된 남자 청소년용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 최종 16문항에 대해 요인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도출한 4요인 모형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표 3. 예비문항의 요인부하량

	문항내용	요인			
		1	2	3	4
10	음란물에 지나친 접촉하다보니 학교성적이나 업무 능률이 떨어진다.	.99			
25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음란물을 보는 것이 더 즐겁다	.86			
9	음란물을 보다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84			
11	음란물이 자꾸 눈에 어른거려 공부 집중에 어려움을 느낀다.	.78			
20	학교나 PC방 등 집 밖에서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		.78		
2	평상시에도 음란물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77		
1	음란물을 보고 난 후 이성과의 성행위를 상상하게 된다.		.73		
22	인터넷 휴대 사용기기(태블릿, 스마트폰, 넷북 등)를 학습용보다 음란물 이용용도로 사용한다.		.59		
32	음란물을 보기 시작하면 스스로 멈추기 어렵다.			.61	
33	음란물을 볼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 같다.	.36		.58	
31	음란물을 그만 보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45		.52	
30	음란물 이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든다.			.41	
14	외우고 있는 음란 사이트, 카페, 블로그 주소 등이 있다.				-.74
15	음란물 중에 선호하는 장르(유형)가 있다.				-.62
12	음란물을 보거나,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하다.	.37			-.60
38	점점 더 새롭거나 자극적인 음란물을 찾게 된다.				-.59

실시하였다.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 최종 16문항을 주축요인추출로 회전방식은 사각회전으로 4요인으로 지정하여 분석하였고 전체변이의 66.5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개의 요인별로 부하량을 살펴본 결과, 성충동과 접근성의 증가 요인에 포함되어있는 문항들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해, 성충동과 접근성의 증가 요인의 문항들을 제거하여 재조정하였다.

3개 요인으로 재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 1 성분의 고유값은 5.90이고, 전체변이의 49.15%를 설명하며, 3개의 성분으로는 전체변이의 67.4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3개의 하위요인으로 수정된 총 12문항은 표 4와 같다.

사이버 음란물 중독 전체와 각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점수와 각 하위 요인 간에 r= .80~.89, p< .01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표 5).

확인적 요인분석(2)

본 연구에서 개발된 남자 청소년용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의 3요인 모형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CFI, TLI, RMSEA를 이용하여 전체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χ^2 검증이 많이 쓰였으나,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모형이 조금만 틀려도 쉽

표 4.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12문항)의 요인부하량

	문항내용	요인		
		금단	일상생활장애	내성
13	사이버 음란물을 그만 보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76		
14	사이버 음란물을 보기 시작하면 스스로 멈추기 어렵다	.71		
12	사이버 음란물 이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든다.	.66		
15	사이버 음란물을 볼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 같다.	.31	.31	
5	사이버 음란물이 자꾸 눈에 어른거려 공부집중에 어려움을 느낀다.		.85	
4	사이버 음란물에 지나친 접촉하다보니 학교성적이나 업무능률이 떨어진다.		.78	
3	사이버 음란물을 보다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64	
11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사이버 음란물을 보는 것이 더 즐겁다.		.53	
8	사이버 음란물 중에 선호하는 장르(유형)가 있다.			-.92
7	외우고 있는 음란사이트, 카페, 블로그 주소 등이 있다.			-.65
6	사이버 음란물을 보거나,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하다.			-.51
16	점점 더 새롭거나 자극적인 사이버 음란물을 찾게 된다.			-.45

표 5. 하위요인간의 상관분석 (N=274)

구분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전체
일상생활장애	1			
금단	.59**	1		
내성	.58**	.67**	1	
전체	.80**	.87**	.89**	1

** $p < .01$

게 기각되고(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홍세희, 2000 재인용), 동일한 모형도 표본 크기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합도 지수를 사용한다. 이에 대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TLI, CFI, RMSEA가 각각 .91, .93, .09로 척도를 구성하는 3요인(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들이 요인 구조모형에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나타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또한 각 문항들이 해당 요인들을 얼마나 설

표 6.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TLI	CFI	RMSEA
3요인 모형	168.215	51	.91	.93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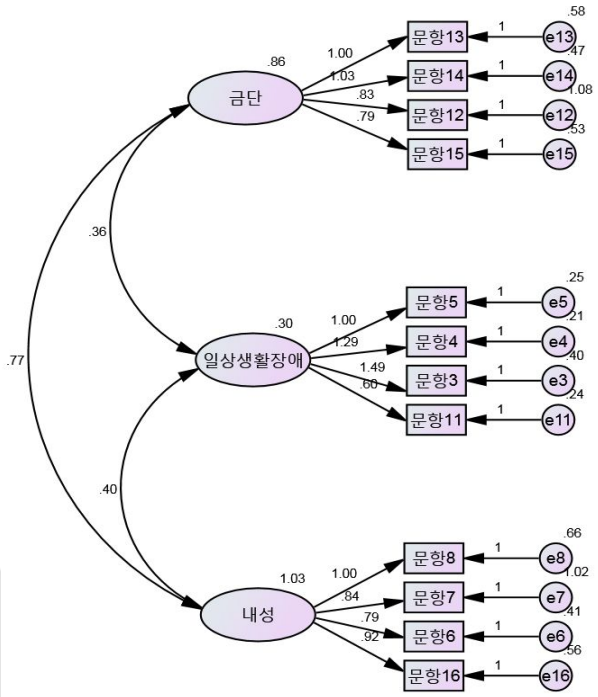


그림 1.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명하고 있는지, 그 값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살펴본 결과, 모든 관측변수의 표준화계수가 .50이상이며, p<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준거타당도

준거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Young의 사이버섹스중독 검사(The Cybersexual Addiction Index: CAI), Burt(1980)가 개발한 강간통념 수용척도를 이석재(1999)가 수정 · 번안하고 새로운 강간통념을 추가로 포함한 강간통념 수용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개발한 간략형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KS척도), 박윤정(2009)의 인터넷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Young의 사이버섹스중독 검사(r=.75, p< .01)와 강간통념 수용도(r=.49, p< .01), 간략형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r=.42, p< .01)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인터넷 자기효능감과는 낮은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r=.13, p< .05). 이러한 결과에 따라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표 7. 사이버 음란물 중독 척도와 사이버섹스중독, 강간통념수용도, 인터넷 중독, 인터넷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N*=274)

척도		사이버 음란물 중독 척도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전체
사이버섹스중독		.62**	.61**	.69**	.75**
강간 통념 수용도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	.40**	.40**	.40**	.46**
	피해자의 성경험	.39**	.32**	.29**	.39**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38**	.34**	.31**	.39**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41**	.37**	.36**	.44**
	전체	.45**	.42**	.40**	.49**
인터넷 중독	일상생활장애	.38**	.35**	.37**	.43**
	긍정적 기대	.23**	.17**	.24**	.26**
	금단	.26**	.27**	.32**	.34**
	내성	.27**	.28**	.26**	.32**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13*	.19**	.16**	.20**
	일탈행동	.24**	.16**	.25**	.27**
	전체	.35**	.34**	.37**	.42**
인터넷 자기효능감		.02	.12*	.16**	.13*

* $p < .05$, ** $p < .01$

신뢰도

사이버 음란물 중독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반분계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Cronbach's α = .90, Guttman의 반분계수는 .8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험자 일부(*N*=41)에 대해 약 2-3주 간격으로 재실시하여

표 8. 신뢰도

	내적일치도 Cronbach α (*N*=274)	Guttman 반분계수 (*N*=274)	검사-재검사 신뢰도 (*N*=41)
일상생활장애	.81	.77	.63
금단	.81	.84	.78
내성	.83	.82	.92
전체	.90	.86	.88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89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논 의

본 연구는 사이버 음란물의 중독여부를 선별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남자 청소년용 척도를 개발하고자 실시되었다.

먼저 선행연구와 신문기사 스크랩, 그리고 기존에 번안되어 사용되고 있던 척도를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선출하였다. 선정된 예비문항들은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를 거쳐 38문항을 선별하였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음란물 접촉경험이 있는 남학생 63명의 자료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이 고유치 1.0이상이면서 각 요인별로 문항의 특징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전체변이의 67.29%를 설명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요인부하량의 기준에 미흡한 문항은 제거과정을 통해 전체 16문항으로 4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를 개발하였다.

2차 연구에서는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274명의 피험자의 자료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1차 연구와 달리 접근성과 충동성의 증가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여 제거하였다. 따라서 총 12문항으로 3개의 하위요인(일상생활장애, 내성, 금단)을 갖추었다. 수정된 요인의 검증을 위해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TLI, CFI, RMSEA가 각각 .91, .93, .09로 척도를 구성하는 3요인(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들이 요인 구조모형에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준거타당도의 검증을 위해 Young의 사이버섹스중독(CAI) 척도, 강간통념 수용도, 간략형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검사(KS척도), 인터넷 자기효능감(Internet Self-Efficacy)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이버 음란물 중독과 비슷한 개념으로 기존연구의 주된 척도인, 사이버섹스 중독 척도와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았을 때, r=.75, p< .01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사이버 음란물 중독의 점수가 높은 청소년은 사이버섹스중독 검사의 점수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척도는 의존하던 외국척도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이버 음란물 중독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써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다음으로 강간통념 수용도는 r=.49, p< .01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란물을 많이 접촉할수록 음란물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고, 음란물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강간통념 수용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지영단(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박미란(2007)의 연구에서 인터넷 음란물 고접촉 집단 학생이 저접촉 진단에 비해 성태도가 더 개방적이고, 충동성이 높으며, 성폭력에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란물 접촉경험이 증가할수록 성갈등과 성비행이 증가시키는 것을 시사하며, 이명화(1998), 황정희(2000) 등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세 번째로 인터넷중독검사는 r=.42, p< .01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과 사이버섹스 중독 실태를 조사한 김민(2003)의 연구에서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중독자들의 음란물에 대한 시간소요가 많고, 인터넷 중독자들의 88%

가 평균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음란물을 보며,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음란물 유형에 대한 접촉경험 역시 높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두 검사 모두 본 척도가 수렴타당도에서 중등도의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한 것과 일치한다.

이와 반대로 인터넷 자기효능감과 변별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인터넷 자기효능감이란 인터넷에 접속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로(박윤정, 2009), 두 검사 간에는 사이버라는 공통성을 지녔으나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에서는 성과 중독에 관련된 부분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사이버 음란물 중독과는 관련성이 적은 것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변별타탕도를 살펴본 결과, 두 검사간의 상관은 r=.13, p< .05로 낮은 정적상관이 나타나 본 척도와는 낮은 상관으로 변별타당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 일치도를 구한 결과 .90으로 나타났으며, Guttman 반분계수는 .8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정적상관으로 신뢰로운 척도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 또한 .88로 신뢰성이 높은 척도라는 점을 검증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는 신뢰성과 타당도를 갖춘 척도로써, 기존에 의존하던 Young의 사이버섹스중독 검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대체하고자 시도되었다. 외국의 척도가 개발된 지 10년 이상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반영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특히 척도의 문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비롯하여, 사이버섹스라는 용어가 주는 어감이 우리나라 정서상 청소년들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졌다. 따라서 본 척도에서는 사이버 음란물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보다 더 척도의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스마트폰으로 성인음란물을 이용한다', '인터넷 휴대사용기기(태블릿, 스마트폰, 넷북 등)를 학습용보다 사이버 음란물 이용용도로 사용한다', '사이버 음란물을 컴퓨터 파일, 하드디스크, USB 등에 저장하여 모아둔다' 등의 현대의 변화와 사이버 음란물의 특징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면서,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요인부하량이 높더라도 요인별로 문항을 일정하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항들이 제거되었다.

본 연구는 사이버 음란물 중독에 관련하여 몇 가지 치료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의 개발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의 성비행과 관련하여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나 관련 연구 및 진단도구가 아직 미흡한 시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척도가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둘째, 사이버 음란물 중독에 취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독여부를 선별하고 이에 따른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본 척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사이버 음란물 중독 여부를 체크해볼 수 있으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부모나 현장에서 청소년을 다루고 있는 교사, 상담원 등에게도 청소년들의 사이버 음란물 중독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음란물 접촉경험의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양돈규, 조남근, 2004; 김민, 2003; 주리애, 하승수, 권석막, 2002)를 토대로 음란물 중독을 측정하는데 성별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남자 청소년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 남·여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으로 본 연구 결과를 교차 타당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지칭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이 제외된 상태로, 활용 면에서도 연령에 대한 제한이 있다. 사이버 음란물의 접촉경험이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는 추세인 것을 감안한다면,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의 활용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는 자기보고형식으로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설문이 이루어졌다. 사이버 음란물은 청소년들에게 성과 관련한 민감한 주제일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장면이라도 자기보고형식의 조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의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가 전국 단위로 표준화작업을 거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이버 음란물 중독척도를 통한 진단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척도의 규준을 만들어 채점방식을 표준화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구자현 (2010). **청소년들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 (1996).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경북 상주 지역 중, 고 남학생을 대상으로**. 대구 효성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 민, 곽재분 (2011). 디지털미디어시대 청소년 사이버섹스중독. **순천향인문과학논총**, 29, 283-326.

김 민 (2003).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과 사이버섹스 중독실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5(1), 53-83.

김상원 (1999). **성교육/성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출판사.

김성숙, 구현영 (2007).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인터넷 중독 및 성태도의 관계. **상담학연구**, 8(3), 1137-1149.

김정규 (2012). 인터넷 음란물 접촉의 요인과 청소년의 섹슈얼리티. **사회과학연구**, 24(1), 1-33.

남영옥 (2004).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성비행의 심리사회적 변인. **청소년학연구**, 11(1), 167-192.

뉴시스 (2008. 5. 1).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

박윤정 (2009). 인터넷 자기효능감과 인터넷 정보격차에 관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혜정, 김은정 (2008). 청소년 성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심재웅 (2010).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시기가 음란물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젠더 & 문화 16, 77-104.

양돈규 (2000).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 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7(2). 117-136.

양돈규, 조남근 (2004). 인터넷음란물 접촉경험과 성비행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2(1), 325-347.

어기준 (2002). 청소년 음란물 중독의 원인과 대책. 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실태와 대책. 제27회 21세기 청소년포럼, 한국청소년학회, 33-48.

오 선 (2004). 인터넷 음란물 중독과 청소년의 성태도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온라인 중앙일보 (2012. 07. 30). 음란물본청소년 5% "성추행·성폭행충동느낀다"

유영달 (2002). 인터넷 중독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우울, 충동성의 차이.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명숙 (2011). 청소년의 성의식·성태도·성행동이 사이버섹스 중독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건호, 강혜자 (2005).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3), 23-40.

이상준 (2003). 인터넷 중독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5, 341-364.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 131-148.

조남근, 양돈규 (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91-111.

지영단 (2001). 음란물 접촉과 강간통념 수용도 간의 관계: 매개변인과 조정변인의 역할.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진인영 (2005). 사이버섹스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채규만 (2003). 디지털 시대의 인간 심리와 문제점. 인간과학연구, 183-207.

최미라 (2006).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음란물 중독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17-230.

Cowan, G. and R. Campbell. (1994). Racism and sexism in interracial pornograph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 323-338.

Fisher, D., D. Hill, J. Brube, M. Bersamin, S. Walker and E. Gruber. (2009). Teleivised sexual content and parental mediation: Influences on adolescent sexuality. *Media Psychology 12(2)*, 121-147.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 130-149.

McKee, A. (2005). The objectification of women in mainstream pornographic videos in Australia. *Journal of Sex Research 42*(4), 277-290.

Tsitsika, A., E. Crirtselis, G. Kormas, E. Konstantoulaki, A. Constantopoulos and D. Kafetzis. (2009). Adolescent pornographic internet site use: A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of the predictive factors of use and psychosocial implications. *CyberPsychology & Behavior 12*(5), 545-550.

Young, K. S. (2002). Getting web sober: Help for cybersex addicts and their loved ones.

원고접수일 : 2013. 10. 04.
수정원고접수일 : 2013. 10. 28.
게재결정일 : 2014. 02. 24.

KCI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4, Vol. 33, No. 2, 261-278

Development of the Korean Cyber Pornography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Male Adolescents

Seon- Kyeong Park WonYoung Song

Ko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cale for measurement of cyber pornography addiction of male adolescents and to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developed scale. For this, in Study 1 158 preliminary items wereformulated from previous studies and scraps of paper articles and then 38 items were selected through testing of content validity of experts. As a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16 preliminary items with high factor loadings were selected and divided into four factors (disturbance in daily living, increase of impulsiveness and accessibility, withdrawal, tolerance). In Study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among 274 male students in order to tes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cale formulated in Study 1. As a consequence, four items related to factor of increase of impulsiveness and accessibility lacked consistency due to being mixed with factors with low loading, and were excluded from this study. Thus, the final scale comprised three factors (disturbance in daily living, withdrawal, tolerance) with a total of 12 items. Criterion-related validity test used the following measures: Young's Cybersexual Addiction Index (CAI); Rape myth acceptance level, which was modified and adapted by Lee Suk-jae (1999) from Burt's Rape Myth Acceptance scale (1980), and a new common notion of rape wasadded;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scale-short form (KS Scale) developed by the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and Promotion; Correlation incorporating internet self-efficacy of Park Yun-joung (2009).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Young's cybersexual addiction Index (r=.75), rape myth acceptance level (r=.49) and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scale-short form (r=.42), while there was low correlation with internet self-efficacy (r=.13). This may indicate that the scale had appropriate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Reliability of the scale for cyber pornography addiction by sub-item was .81 ~.83, while that for the whole scale was .90, showing high internal consistency. In addition Guttman split-half coefficient was .85, with re-retest reliability of .88, evidencing high reliability in general as well. In the last part of this study, its limits along with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Cyber pornography addiction, adolescents, Development of scale